

투데이 칼럼

APEC 성공적 개최로 한국의 국력을 생각해 본다

지난달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신라 천 년의 수도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는 대한민국의 외교력과 국력을 전 세계에 널리 보여준 역사적 순간이었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과 국제적 갈등이 교조되는 가운데, 한국은 이제 당당한 모습으로 국제질서의 균형 형을 이끌어가는 중심축으로 우뚝 섰다.

이번 회의의 성공적 개최는 단순한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넘어, 한국이 세계 무대에서 당당히 목소리를 내는 모습을 선보인 뜻깊은 자리였다.

APEC은 21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의 지역경제협력체다. 세계 인구의 절반과 교역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이 협력체에서 한국은 경제력과 기술력, 문화력을 두루 갖춘 핵심국으로 자리를 잡았다.

이번 회의에서 우여곡절 끝에 '경주 선언'을 채택한 점이 돋보인다. 그리고 올해 APEC의 3대 중점 과제인 '연결, 혁신, 번영'이라는 의제를 내세워 무역, 투자,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포용적 성장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한 구체적 해법을 제시한 점도 무엇보다 의미가 깊다.

한국이 이제 단순한 회의 주체를 넘어, 국제사회의 의제를 선도하는 '의제 설정국(agenda setter)'으로 도약했다는 점이 큰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겠다.

특히 이번 APEC의 성공은 한국의



이 만 호

본보 정치부장

'조용한 힘(soft power)'의 위력을 보여주었다. 경주의 시민들은 질서 정연한 교통과 자발적 봉사로 한치의 착오도 없이 정상들을 맞이했고, 첨단 인프라와 친환경 행사 운영은 전 세계에 한국이 기술력과 환경의 조화를 이룬 선진국임을 실감하게 했다.

행사장 주변에 울려 퍼진 한류 음악과 K-컬처 전시는 문화가 경제를, 예술이 외교를 움직이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전 세계에 널리 보여주었다.

이제 한국의 브랜드는 단순한 경제성장에서 품격 있는 선진국으로 넓게 확장되었다고 본다.

회담장에서는 실제적인 외교 성과도 눈부시게 나타났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 협상에서 자동차 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고, 일시 현금으로 투자해달라는 일방적 요구를 10년에 걸쳐 200만 달러씩 분납 투자하며 1,500만 달러를 마스가 프로젝트에 투자하도록 합의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한국경제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실질적 이익을 확보한 협상으로 평가된다.

또한 중국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에서는 북한 비핵화 협력은 얻어내지 못했지만, 사드(THAAD) 배치 이후 경색된 양국의 교역 관계를 완화하고 경제교류를 더욱 확대하는 성과를 얻었다.

일본 다카이치 총리와도 한미일 공조를 더욱 공고히 하고 무역장벽을 낮추기로 합의했다.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도 없는 냉엄한 국제관계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실리와 균형을 바탕으로 한국의 위상을 한 단계 높이고 경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회의의 성공적 개최는 국민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만들어낸 결과라는 점에서 더욱 값있다. 지난 수십 년간 산업화와 정보화, 민주화를 일군 국민의 자력이 행사장 곳곳에 배어 있어 세계인을 감탄케 했다.

한국의 국력은 단순한 경제지표나

군사력으로 측정되지 않는다. 그것은 국민 의식의 수준과 국제사회의 신뢰, 그리고 미래를 향한 통찰력에서 비롯된다. 경주의 하늘과 바다 위로 펼쳐진 불꽃은 한국의 가능성을 환히 비추었고, 세계는 한국을 책임 있는 선진국으로 주목하게 되었다.

이번 성공은 한순간의 영광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국가 브랜드로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가 쌓아 올린 성과는 케이팝, K-뷰티, K-컬처 등 한국문화와 예술, 경제력에 대한 자부심으로 더욱 확장되어야 한다. 과거의 영광에 머물지 않고, 미래를 향해 당당히 나아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APEC 경주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는 한국인의 자력과 창의성, 성숙함을 세계에 보여준 멋진 모습이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이 성취를 단순한 기억으로 두지 않고, 앞으로의 대한민국을 더욱 빛나게 하는 밑거름으로 삼는 것이다.

한국은 세계 속에서 당당히 서 있으며, 인류 공동 번영의 길을 함께 설계하는 책임 있는 선진국으로 나아가야 한다.

경주의 밤하늘 위로 다시 한 번 밝게 빛날 불꽃처럼, 대한민국의 미래도 환히 밝혀야 한다. 이 빛을 지속 가능한 성장과 문화적 자존감으로 이어갈 때, 비로소 한국이 세계의 정치 경제 문화를 아우르며 선도하는 나라로 더욱 발전하며 나아가게 될 것이다.

사설

손으로 하는 육상경기 스포츠 스택킹

스포츠스택킹(Sport stacking)은 공인기록장비를 이용하여 컵을 쌓고 내리는 모든 활동이다. 컵 쌓기라고도 불리며, '손으로 하는 육상경기'라고 이야기하기도 한다.

1980년대 초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시작했으며 초기에는 어린이들이 하는 놀이 정도로 활용되었다.

90년대 미국 유명 TV쇼에 소개가 된 이후부터 미국 전역에 알려지기 시작했고 콜로라도의 초등학교 체육교사였던 밥 파스(Bob Fox)가 TV쇼에서 스포츠스택킹을 처음 접하고 교육 프로그램으로 개발하기 시작했다.

밥 파스의 스포츠스택킹 전파 활동을 통해서 미국 전역에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본격적인 활동을 위해 세계스포츠스택킹협회(World Sport Stacking Association)를 설립하여 전 세계 학교, 체육 수업에 활용할

스포츠스택킹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했다.

2011년까지 미국에서 단독 개최를 하다가, 2012년 독일에서 개최를 하게 됨으로써 3년을 주기로 북미,유럽,아시아 순서이다. 한국에선 2014년 전주에서 개최했다.

한국에선 2011년 비영리사단법인 대한스포츠스택킹협회가 생겼다. 2012년부터 공인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스포츠스택킹은 개인 종목과 단체 종목으로 나뉜다.

개인전은 더 빠른 기록에 도전하고 기록 갱신을 위해 도전하는 도전영역이며, 기록경기이다.

3-3-3은 동작수행이 간단하여 배우기 쉬운 스포츠스택킹의 특징을 잘 나타내는 개인전 첫 번째 종목. 6살 이하의 어린이부터 65세 이상의 시니어까지 기록자들이 적어 특수체육 등에 활용하기 좋다.

유튜브의 문제점

유튜브가 개선은커녕 무시와 동문서답으로 외면하고 있다. AI의 댓글검열에 대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이용자들의 항의에도 관련 영상들에 대한 제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차단도 신고도 먹히지 않아 문제가 심각하다. 검색어랑 무관한 만큼 사이버 테러나 다름 없는 수준이다. 현대 인터넷에서 주로 소비되는 영상물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뉜다.

비교적 가공이 덜 된 생방송(라이브 스트리밍)과 편집 등의 본격적인 가공 과정을 거쳐 업로드된 정제 영상이 그것들이다. 유튜브는 후자에 강점이 있는 플랫폼이다.

후자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타 동영상 플랫폼은 대부분 유튜브와 경쟁 자체가 안 될 정도로 소규모다. 사실상 유튜브의 경쟁 플랫폼은 전무하다.

유튜브와 유튜브를 소유한 구

글의 힘이 지나치게 커져버린 나머지 이들은 독과점자로서의 입장을 이용하여 네티즌들과 타사의 플랫폼에 온갖 횡포를 부리고 있다. 유튜브에 준하는 규모의 대형 동영상 콘텐츠 공유 회사가 생기지 않는 한 이러한 행태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외부에서 트래픽 공격이 들어오든 부당한 저작권 신고가 들어오든 증명을 해야 하는 사람이 유튜브버 본인이다. 심지어 트래픽 공격은 일개 개인이 증거를 캐낼 만큼의 역력이 없기 때문에 이를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이 문제는 유튜브가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독립을 하지 않는 한 고쳐질 수 없다. 결국 '자유롭게 업로드할 권리'는 2012년 SOPA 반대투쟁처럼 유튜브버 본인이나 네티즌 스스로가 싸워서 얻어야 할 문제일 것이다.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80 송주빌딩 4층

찰스 3세에게 기사 작위 받는 데이비드 베컴



데이비드 베컴(오른쪽)이 4일(현지 시간) 영국 버크셔 윈저성에서 찰스 3세 국왕으로부터 기사 작위를 받고 있다. 베컴이 영국 왕실의 최고 수준 영예인 기사 작위와 함께 '경'(Sir)의 칭호를 받았다.

뉴욕시장에 당선된 조란 맘다니 후보



4일(현지 시간) 실시된 뉴욕시장 선거에 승리한 민주당 조란 맘다니 후보가 지지자들의 환호에 답례하고 있다. 맘다니 후보는 무소속 앤드루 쿠오모 후보를 제치고 차기 뉴욕시장에 당선됐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행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